

전남도 “정원관광 브랜드화”... 예쁜정원 콘테스트

이달 31일까지 2개 부문 진행
개인정원·카페 7개소 선정·시상
정원문화 확산·우수자원 발굴
“관광객 증가로 지역발전 견인”

전남도가 정원관광 브랜드화를 통해 지역 발전에 나선다.

전남도는 민간에서 만든 정원을 찾아 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의 우수자원으로 발굴하기 위한 ‘2024 전남도

예쁜정원 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5회차를 맞는 예쁜정원 콘테스트는 개인 정원과 카페 등 생활권 정원 2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참가는 그동안 정원을 만들고 가꾼 개인과 단체 등 누구나 가능하며, 오는 31일까지 정원 소재지 시·군 산림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정원 중 전문가 심사를 통해 △대상 1개소 △최우수상 2개소 △우수상(4개소) 등 총 7개소의 예쁜정원을 선정

해 시상할 계획이다.

심사는 정원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 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정원 디자인 및 심미성 △타 정원과 차별성 △시공품질 및 완성도 △관리상태 △지역민과의 공유 등 5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예쁜정원 콘테스트에 당선된 정원에는 전남도지사 상장과 예쁜정원 현판을 수여해 그동안 정원을 만들고 가꾼 정원주의 자긍심을 고취함과 동시에 국민과 그 가치를 공유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총상금 1000만원 규모로, 대상 300만원, 최우수상 150만원, 우수상 100만원이 수여된다.

앞서 예쁜정원 콘테스트에 당선된 정원 중 △순천 ‘화가의정원 산책(2020년)’ △나주 ‘3917마중(2020년)’ △화순 ‘효산리정원(2020년)’ △해남 ‘문가든(2021년)’ △보성 ‘꿈꾸는 숲 선유원(2021년)’ △골광대요리사의 정원(2021년) △신안 파인클라우드(2022년) △여수 꿈꾸는정원(2022년)

△화순 ‘솔매음정원(2022년)’ △함평 몽베르(2023) 등 총 10개소가 민간정원으로 등록돼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박종필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최근 많은 국민들이 정원을 방문해 지역사회 발전까지 견인하고 있다”며 “개인이 만들고 가꾼 예쁜 정원을 지속적으로 찾아 국민들과 가치를 공유하고 우수 정원을 등록하도록 유도해 정원관광 브랜드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전남도-시·군, 홍수기 대응 상호 협력 강화

예보체계 공유·취약지 점검

전남도는 8일 극한 호우를 포함한 이상 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여름철 홍수기 대비 시·군 영상 대책회의를 열고 시·군별 대응계획을 점검, 상호 협력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장마철을 앞둔 5월을 재해 사전점검 중점 추진을 위한 ‘사전 대비의 달’로 지정·운영하며 이날 회의에서는 환경부, 영산강홍수통제소와 협력하는 강화된 홍수예보체계 운영 계획을 시·군과 공유했다.

재난 상황에서는 골든타임 확보가 최우선인 만큼 과거 사용하던 팩스, 핸드폰 문자 방식은 활용한 상황 전파와 함께 문자 음성변환 자동전파체계(VMS), 재난 안전 통신망을 활용해 홍수 대응기관에 재난 상황을 일시 전파하고 인명피해를 제로화할 방침이다.

또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기록적인 수해 발생지역의 재해복구 현장을 살핀 결과를 언급, 재난 대비를 위해 현장을 직접 확인할 것을 요청하고 본격적인 홍수기 전 훼손된 하천 구간 등 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곽지혜 기자



서구노인종합복지관 어버이날 봉사

있다.

어버이날을 맞아 8일 광주 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어버이날 행사에서 호남대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이 어르신들에게 물리치료와 관절 테이핑을 해주고

김영배 기자

전남도, 봄철 어패류 산란기 불법어업 합동단속

전남도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5월 한 달간 해양수산부, 시·군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 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봄철은 다양한 어·패류가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불법어업 행위 사전 차단에 위해 해수부, 전남도, 시·군 어업지도선 18척을 우선 해역에 배치하고 지도·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등록 어선

의 불법조업, 무면허 양식시설 설치,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및 변형어구 사용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어업 행위자는 수산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조치하고 어선에 대해서도 어업정지, 어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또 어업인들의 준법조업 분위기 확산을 위해 관내 주요 항·포구와 위판장 등에서 불법어획물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과 불법어업 예방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곽지혜 기자

광주시, 행락철 대비 공중화장실 전기안전 점검

광주시가 행락철을 맞아 공원 공중화장실 전기안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행락철을 맞아 야외 활동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공원 공중화장실 내 전기 사용 장치 등을 사전에 점검해 화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자치구·한국전기 안전공사와 함께 점검반을 편성해 최근 공중화장실 표본 10곳에 대해 실시한데 이어 이외 공중화장실은 자치구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 5월까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화장실 내 분전반 절연상태, 누전차단기 동작상태, 시설 내 콘센트 파손여부 등으로 점검결과 확인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또는 장기적으로 보수·보강할 계획이다.

또한 광주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2월부터 편의 대책을 추진, 경찰과 합동으로 공중화장실 비상벨 정상 작동 및 불법 촬영 여부를 일제 점검했다.

노병하 기자

광주그린카진흥원, 제7대 신임 원장 공모

(재)광주그린카진흥원은 오는 23일까지 제7대 신임 원장을 공개모집한다.

8일 광주그린카진흥원에 따르면 이번에 모집하는 신임원장 응모자격 및 지원자 요건은 기업, 대학, 연구소, 지자체 등에서 자동차 산업등 관련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사항을 갖춘 전문가여야 한다. 또 기관을 총괄할 수 있는 행정역량과 광주 자동차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술역량도 두루 갖춰야 한다. 여기에 시의회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임원 채용 관련법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병역기피·세금탈루·연구 부정행위·음주운전·성범죄등 7대 비

리 인사검증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공개모집 기간은 이날부터 23일까지로 원서접수는 오는 16일부터다. 이메일, 방문 및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추천된 후보자는 진흥원 이사회 의결을 통해 최종후보자 1명을 선정한다. 최종후보자는 광주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 7월초에 신임 원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세부 응모 자격 요건 및 모집일정은 그린카진흥원 홈페이지 및 광주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노병하 기자

사업비 최대 7000만원 지원 공공성·공익적 가치 평가

광주시는 8일 행정안전부의 ‘2024년 우수마을기업’에 바이오씨앗 협동조합과 본빵 협동조합 등 광주마을기업 2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최대 7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사업비는 마을기업의 제품개발을 비롯해 기반시설 구축, 홍보 강화 등에 사용된다.

또 행안부가 주관하는 민간 유통 플랫폼 협업 행사를 통한 제품 판매, 홍보·마케팅 등 다양한 판로지원을 받는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 단위 창업을 통해 주민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행정안전부가 매년 공공성과 공익적 가치에 우수한 성과를 낸 마을기업을 우수 마을기업으로 선정한다.

바이오씨앗 협동조합(광주 서구)은 특허받은 복합 유산균을 활용한 제과·제빵을 생산·판매하는 식품기업으로 조합원 및 주민들과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취약계층에 식사를 지원하고 복지센터에 1000만원 상당의 제빵을 후원하는 등 다양한 기부활동에 힘쓰고 있다.

본빵 협동조합(광주 광산구)은 농촌마을의 단순한 농산물 생산·판매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기획한 ‘오월 주먹빵’이라는 대표 상품을 제작하는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상품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꾸준한 기부와 교육으로 지역사회에 그 결실을 환원하고 있다.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은 “그동안 마을기업 육성 단계를 통해 내부 역량을 키운 마을기업이 지역사회에 공헌한 기여도를 전국에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마을기업 우수 사례를 더욱 발굴·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여수·순천 10·19평화문학상 현상 공모

평화·희망 담은 작품 접수
시·소설, 총상금 5천만원

전남도는 여수·순천 10·19사건의 아픔을 치유하고 역사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제1회 여수·순천 10·19평화문학상을 현상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재)전라남도문화재단 주관으로 진행되는 10·19평화문학상 공모 대상은 시와 소설 2개 부문이다. 주제는 여수·순천 10

·19사건을 모티브로 한 진실과 평화·인권 및 해원·상생의 가치 구현 등이다.

응모는 소설 부문의 경우 200자 원고지 80매 이상의 중·단편, 시 부문은 5편을 제출하면 된다. 모든 작품은 미발표작으로 작가 자신의 순수 창작품이어야 한다. 응모 자격은 거주지, 연령, 기성·신인 작가 등 제한이 없다.

당선작에는 부문별 상패와 상금이 수여된다. 총상금은 5000만원이다. 소설 부문

최우수 2000만원, 우수상 2편 각 500만원, 시 부문 최우수 1000만원, 우수상 2편 각 500만원이 주어지며 당선작은 작품집으로 발간된다.

응모작 접수 기간은 오는 8월13일(오후 6시 도착분까지 유효)까지이며 이메일(peace1019@jncf.or.kr)로 접수하면 된다.

당선작은 10월께 전남도와 (재)전남도 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으로, 제76주기 여수사건 합동추념식과 연계해 시상할 계획이다.

곽지혜 기자